

해외양돈뉴스

WORLD PORK NEWS



| 미국

돈육 생산량 소폭 증가세 6월말 467만톤 전년비 1.4% 증가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돈육 생산량은 467만5천200톤으로 지난해 동기 460만8천600톤보다 1.4%가 늘었다는 것이다. 6월 돈육 생산량은 75만2천톤으로 전월 78만톤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미국 돈육 생산량은 1월 83만톤, 2월 74만톤, 3월 85만톤, 4월 73만톤, 5월 78만톤으로 매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6월 돼지 도축두수는 834만두로 전월 854만두, 지난해 동기 855만두에 견줘서는 각각 2.3%, 2.5%가 감소했다. 도축시 생체 중량은 121kg으로 전달 123kg에 비해 2kg줄고, 작년과 같았다.

NPPC, DDA·FTA 적극지지 표명

미국돈육생산자협회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DDA 협상단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장인 조이 필립피는 미국과 미국협상외교단이 미국의 농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소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이더라도 곧 정상궤도에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생산자협회는 페루,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이 진전되도록 의회에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공적인 DDA와 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위해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28번째 광우병 발생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8월 11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서 키우던 홀스타인종 소에서 28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생후 6년 반이 된 이 소가 10일 최종검사 결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지난 2001년 처음 발견된 이후 28번째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해당 소의 어떤 부분도 유통되거나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축된 후 소각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일본은 지난 7월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2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수입을 재개했으나, 통관 검사 도중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어 지난 1월 다시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일본은 앞서 시찰한 미국 식육처리시설 중 문제점이 발견된 한두 곳은 수입재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국산 쇠고기 '불신(不信)'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했으나, 일본인의 약 88%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으며, 43%는 어떤 쇠고기를 구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 뿐이었다.

식육수출촉진협회 발족

일본이 일본산 육류의 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최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농수성은 자국산 식육의 수출 촉진을 추진할 '국산식육수출촉진협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일본 정부가 농림수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을 09년까지 금액기준 2배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협회는 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와 JA전농, 일본식육수출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 중 국

간쑤성 구제역 재발

중국 간쑤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 8월 7일 서북부 간쑤성에서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인 아시아-1형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지난 7월31일 간쑤성 후이닝현 라오친향 가오스촌의 일부 농가의 소들이 구제역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쑤성 수의당국은 구제역에 걸린 소 230마리를 포함 소, 양, 돼지 등 모두 607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생돈 무역 수지 흑자 기록

중국의 생돈 수출이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하이 aT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생돈 수출은 3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3억9천만달러에 비해 약 2.8%가 감소했다. 그러나 생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5천800만달러를 기록, 생

돈 무역 수지는 3억2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한편 축산물의 수출은 14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9%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18억2천만달러로 1년전보다 10.9%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3억7천만달러로 작년에 비해 35.9%증가했다.

| 호 주

올해 돼지 이력제 시행키로

호주가 빠르면 금년 말부터 돈육 이력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은 호주에서 연말쯤 'Pig Pass'라는 돼지 이력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으로 돈육 가공업체들이 이력 추적 가능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만큼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양돈농가는 물론 도축장, 공판장등에서 돼지의 이동 및 거래내역을 모두 기입토록 돼 있다.

| 세 계

옥수수 가격 오름세

7월 중순 156불 전월비 8달러 증가

최근 미국 농무성은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세계 생산량은 9억7천22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0.3%, 미국 생산량은 2억8천764만톤으로 전월보다 1.4% 각각 증가했다. 세계 재고량 1억2천868만톤, 미국 재고량 3천139만톤으로 한달전보다 각각 1.7%,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옥수수=세계 생산량은 6억8천675만톤으로 지난 달에 견줘 0.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생산량은 2억7천281만톤으로 6월 예상치 대비 1.8% 많았다. 세계 재고량은 9천122만톤, 미국 2천735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1%, 1.3%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박=세계 생산량은 1억4천888만톤, 미국 생산량은 3천782만톤으로 각각 전월과 같았다. 세계 재고량은 559만톤으로 전망돼 한달전에 견줘 1.3%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23만톤으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대두=세계 생산량은 2억2천28만톤으로 예상돼 지난달에 비해 0.8%, 미국은 8천192만톤으로 전월보다 2.3% 각각 감소했다. 세계 재고량은 5천301만톤, 미국 1천525만톤으로 전달 대비 7.8%, 14.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가격=7월 중순 현재 사료곡물 시세는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미국 톤당 옥수수의 경우 156.4달러로 전월 평균 148.7달러에 비해 7.7달러 오른 반면 대두박은 243.2달러로 전월 256.3보다 13달러가 떨어졌다.

대만·EU·中 “돼지고기가 제일 좋아요”

소비량 세계 1·2·3위 차지

최근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발간한 '2006년도 식육편람'의 지난해 세계 각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나라는 대만 42kg, EU 회원국 40.3kg, 중국 37.5kg등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작년 돼지고기 소비량인 17.4kg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이들 나라들 모두 쇠고기나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훨씬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은 쇠고기 5.4kg 닭고기 7.7kg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다른 육류에 비해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 나라들로는 일본 19.6kg, 필리핀 13.6kg, 루마니아 29.4kg, 러시아 17kg, 우크라이나 11.7kg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류 소비가 많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은 각각 30.3kg, 15.1kg, 29.1kg, 10.9kg으로 조사됐다.

세계 돈육 생산량 5개국이 70%차지

중·미·독·스페인·브라질

돼지고기 생산량 세계 상위 5개국의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연합식량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돈육 생산량 상위 5개국인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의 생산량은 총 6천948만9천톤(05년 기준)으로 전체 생

산량 1억370만톤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나라의 돈육 생산량은 각각 △중국 4천968만5천톤 △미국 939만톤 △독일 450만톤 △스페인 315만6천톤 △브라질 276만톤 순으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돈육 6~10위 생산국은 △프랑스 227만5천톤 △베트남 220만톤 △폴란드 193만6천톤 △캐나다 191만5천톤 △덴마크 179만3천톤이다. 이로써 1~10위 생산국의 돈육 생산량은 총 7천960만8천톤으로 전체 생산량 중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위안의 국가는 △러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벨기에 △한국 △대만 △영국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 멕시코

NAFTA 이후 멕시코... 돈육 수입 폭발적 증가 중소 양돈농가 탈락 가속화, 양돈산업 '압박'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으로 전락하면서 멕시코 양돈산업이 존폐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는 지난 1992년 NAFTA를 체결, 1994년부터 시행했으며,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돼지 사육두수 및 돼지고기 생산·수입·수출에 큰 변화를 겪었다.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1천608만7천두에서 2004년 1천66만8천두로 대폭 감소했으며, 돼지고기 생산은 증가했으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폭발하여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생돈이나 돼지고기 수급동향이 멕시코 국내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난 1998~1999년에는 미국의 생산 증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하락함으로써, 멕시코 국내 식육업자가 저가의 미국산 생돈 수입을 늘려 멕시코 중소 양돈농가 탈락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미국 육류의 대 멕시코 수출에 대한 무역규제가 종료됨에 따라 돼지고기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됐다. 멕시코의 돼지고기 국내 생산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폭발적 증가를 보여 멕시코 양돈산업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추세

최근 국제연합식량기구(FAO)는 200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370만톤의 돼지고기가 생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327만톤, 3.25%가 증가하고, 2000년 대비 15%, 1990년 대비 48%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1991년 처음으로 7천만톤을 기록했으며, 1995년에는 8천만톤, 2000년에는 9천만톤, 2004년에는 1억톤을 기록했다. 또한 2000년부터 돼지고기 생산국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Pig International은 작년 돼지고기 생산량에 따른 국가 순위를 집계했다. 2005년도 돼지고기 생산량

에 따른 상위 세계 20개 국가 중 10위권 내 국가들에서 주목할 점은 2000년 10위를 기록한 베트남이 2005년 폴란드, 캐나다, 덴마크를 제치고 7위를 기록한 점이다. 베트남은 2000년과 비교해 생산량이 약 53% 증가했으며 3년간 22.5%가 증가했다. 한편 상위 20개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는 적었으나, 한국은 2004년에 비해 약 1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남미의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과 멕시코이다. 북미에서는 미국이 2000년부터 캐나다의 생산량을 크게 앞질렀으며, 유럽 국가들은 그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Pig International]

■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단위 : 천톤, 자료제공 : FAO)

년 도	199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천톤)	71,915	90,094	92,081	95,248	98,472	100,427	103,697

■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 점유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아시아	54	55	55.3	55.9	56.9	57
유럽 + 러시아	27	26	25.7	25.3	24.3	24.2
북 미	12.7	12.6	12.6	12.4	12.4	12.4
남 미	5.6	5.6	5.6	5.6	5.6	5.6
아프리카	0.8	0.8	0.8	0.8	0.8	0.8

■ 돼지고기 생산 상위 20개국 돼지고기 생산동향

(단위 : 천톤)

국 가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 가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중국	41,406	42,982	44,358	45,186	47,016	49,685	11. 러시아	1,569	1,498	1,583	1,706	1,706	1,610
2. 미국	8,597	8,691	8,929	9,056	9,312	9,390	12. 필리핀	1,008	1,064	1,332	1,346	1,346	1,320
3. 독일	3,981	4,074	4,111	4,239	4,308	4,498	13. 네덜란드	1,415	1,433	1,377	1,253	1,253	1,268
4. 스페인	2,912	2,993	3,070	3,190	3,191	3,156	14. 일본	1,256	1,232	1,246	1,260	1,260	1,250
5. 브라질	2,556	2,730	2,872	2,791	2,661	2,760	15. 멕시코	1,030	1,058	1,070	1,035	1,035	1,195
6. 프랑스	1,900	2,315	2,350	2,333	2,311	2,275	16. 벨기에	1,061	1,072	1,044	1,029	1,029	1,104
7. 베트남	149	1,515	1,654	1,795	2,012	2,200	17. 한국	1,004	1,077	1,153	1,149	1,149	1,036
8. 폴란드	1,923	1,849	2,018	2,094	2,094	1,936	18. 대만	825	900	903	911	911	925
9. 캐나다	1,640	1,731	1,854	1,882	1,882	1,915	19. 영국	808	781	795	715	715	703
10. 덴마크	1,624	1,714	1,759	1,762	1,762	1,793	20. 태국	575	632	645	661	661	683

